

“소득 3만불? 공기는 후진국”...환경단체, 미세먼지 맹공

최열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공동대표 1인 시위
 “말로만 하는 ‘특단대책’은 그만...강력 조치 시행”
 녹색연합 “국내 미세먼지 기여도 15% 석탄화력”
 “현재 전력 40%가 석탄 화력...줄여도 문제 없어”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미세먼지 특단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감조치가 옛새째 이어지고 있는 6일 환경단체들이 잇따라 정부에 특단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전문 공익재단인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최열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최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더이상 구체적 행동이 없는 말로만 하는 ‘특단의 조치’에 국민은 지쳐 간다”며 “지금 당장 강력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올림픽 마라톤 보이콧이 있을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했던 1988년부터 30년이 지난 2018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이미 3만달러를 훌쩍 넘었다”며 “GDP가 10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공기질은 10배가 좋아지는 커녕 제자리걸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OECD 국가와 견주어 우리는 (공기질 순위에서) 명백히 꼴찌”라며 “공기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데

GDP가 오른다고 국민이 살맛이 나겠나”라고 꼬집었다.
 최 대표는 미세먼지 특별법 발효에 따른 전국적인 비상저감조치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불안에 비해 너무나 소극적”이라며 ▲비상시 모든 차량 2부제 시행 ▲석탄화력 가동 중단 및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비중 증가 ▲국가 차원의 임시휴교와 재택근무 권고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국내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제거해야 중국 등 주변국과 협력해 동아시아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새로운 협력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도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미세먼지 주범을 석탄화력발전소로 지목, “가동을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내 미세먼지 기여도에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녹색연합 관계자들이 석탄발전 중지를 촉구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가장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석탄발전을 멈추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 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이른다”며 “노후석탄발전 4호기를 중단하고 화력발전 출력을 80%로 조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력에서 차지하

는 석탄화력발전량 비중이 40%인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을 최대한 줄인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노후 석탄화력발전 10기를 폐쇄하라고 했지만 7기의 석탄화력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중이어서 우리나라의 석탄화력발전소는 2030년까지 꾸준히 늘어날 계획”이라며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

‘미세먼지 쇼크’ 시민들 셀프감금... “감옥이 따로 없다”



“한창 뛰어놀 3살짜리 아이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도 못하니 너무 미안해요. 한마디로 그냥 재앙 같은 상황입니다.” (30세 김정연 씨)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옛새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6일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스스로 가둔다는 의미의

‘셀프(Self) 감금’이란 말이 고유명사처럼 사용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일상을 이어나갈 수 없을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정부는 중국과 외교로 해결이 안 된다면 공기청정기를 보급해주는 경제적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직장인 이정훈(30)씨는 “집에서



창문을 열고 환기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난다. 요즘은 시청 앞에 거대 공기청정기가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망상까지 한다”며 “정부가 외치만 신경 쓰느라 국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다”고 밝혔다.
 실내에서 일할 수 없는 노동자들은 종일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진동카트를 타고 아쿠르트를 판매하는 이모씨는 “비깅에서 근무하다 보니 자고 일어나면 눈이 뻑뻑하고 목도 간지럽다”며 “그런데 마스크를 끼면 화장품이 다 묻어나는 데, 얼굴을 가리고 장사하기가 꺼려지는 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씨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유

동인구가 갑자기 줄어든다”며 “오늘도 평소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 장사가 잘 안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미화원 이모(40)씨는 “밖에서 근무하니 마스크를 끼긴 하지만 호흡하는 데 지장이 있어 불편하다”고 말했다.
 다가올 봄을 기대하며 야외에서 즐기는 데이트도 그저 희망사항이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윤모

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대화가 잘 안 돼서 안타깝다”며 “결혼한 친구들도 아이들 건강이 안 좋아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말했다.
 한창 실의 활동을 즐길 청소년들의 답답함은 더욱 컸다.
 구로중학교에 재학 중인 박모(15)군은 “축구, 배구, 농구 등 다 좋아하는데 교실에만 있어야 한다. 야외 수업도 거의 안 한다”며 “답답하고 나가고 싶다”고 했다.
 같은 학교의 박승표(13)군은 “어

“환기한 지가 언제지 기억도 안 나”
 “한창 뛰어놀 아이, 밖에도 못 나가”
 “정부, 외교만 신경...국내엔 무관심”

(27)씨는 “여자친구가 성북구에 살아서 근처 북악스카이웨이를 걷고 함께 한강에서 보드도 탔었다”며 “그런데 요즘엔 데이트 코스도 식당이나 카페 등 실내로 제한돼서 다소 무뎠던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이모(27)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매하긴 했지만

제 계획하고 나서 첫 체육수업이었는데, 그냥 교실에서 진행됐다”며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강당에서 수업한다고 들었다. 축구는 운동장에서만 할 수 있는데 빨리 미세먼지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